

신석정 초기시에 나타난 ‘새’와 ‘산’의 혼성공간 특성 연구

정유미(전북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산’의 존재론적 은유와 근원으로서의 |
| 2. ‘새’의 존재론적 은유와 이상세계로의
지향성 | 회귀성 |
| | 4. 결론 |

1. 서론

우리는 신석정 시인을 ‘자연친화적 시인’, ‘목가적 시인’, ‘전원 시인’으로 기억한다. 이는 신석정 시세계의 조명이 초기 『춧불(1939)』과 『슬픈 목가(1947)』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신석정 시인은 두 시집 이외에도 『빙하(1956)』, 『산의 서곡(1967)』, 대바람 소리(1970)』를 출간하였고, 2007년에는 유고 시집 『내 노래하고 싶은 것은』이 출간되었다.¹⁾

시집의 권수로 보나 작품수로 보나 『슬픈 목가』 이후에 더 활발한 창작 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 그런데 시인에 대한 조명과 평가가 유독

1) 이 외에도 2009년에 발간된 5권으로 된 전집 중 두 번째 권에는 ‘미수록시집’이라 이름하여 182편의 시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초기 작품 세계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김기림 시인이 1930년대 석정을 ‘목가 시인’이라 평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³⁾ 그 후에는 석정 시인의 시세계에 대해 별다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는데, 이때 역시 서정주 시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 시인’, ‘전원 시인’이라는 평가이다.⁴⁾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신석정 시인에 대한 평가가 대립적인 이분 구도라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자연 친화’라고 평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 참여’로 평가한다. 허소라⁵⁾는 신석정을 서정시의 형태로 역사의식과 민중의식을 담은 준열한 참여시를 시도한 거의 유일한 시인이라고 평가한다. 이를 필두로 석정 시세계의 현실 참여적 특성을 고찰한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석정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는 이유는 석정의 시세계가 전쟁을 전후로 확연하게 달라지는 데서 비롯한다. 강희안⁶⁾은 『산의 서곡』과 『대바람 소리』를 발표한 신석정의 후기 시세계를 참여와 서정의 양극단을 조율하기 위한 시기로 보고, 20여 년에 걸쳐 시대사와 밀착된 배경에서 역사의식이 더 첨예하게 분출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석정의 시세계는 『촛불』과 『슬픈 목가』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빙하』에 실린 작품들을 발표한 중기, 『산의 서곡』과 『대바람 소리』의 후기로 나누어진다. 즉 해방 전의 시세계와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시기와 전쟁 직후의 시세계, 그리고 60년대 이후의 시세계로 나뉜다. 이 중 초기의 시세계는 확실히 자연친화적이고 목가적이다. 그러나 중기 이후부터 후기에 이르는 시세계는 현실 참여적 특성이 강하다. 신석정의 시세계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⁷⁾

2) 신석정 시인이 남긴 시작품 중 발간된 시집에 수록된 작품은 모두 334편이다. 그 중 69편만이 『촛불』과 『슬픈 목가』에, 265편이 그 이후에 발표되었다. 『신석정 전집』의 ‘미수록시집’ 편에 실린 시들까지 합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3) 김기림, 『1933년의 시단의 회고와 전망』, 『조선일보』, 1933. 12. 10.

4) 서정주, 「신석정과 그의 시」, 『한국의 현대시』, 일지사, 1965, 183~184면.

5) 허소라, 「신석정연구」, 『한국언어문학』 제14호, 1976, 227~249면.

6) 강희안, 「신석정 후기시의 시간 의식과 현실 인식」, 『비평문학』 제40집, 2011, 36~37면.

7) 신석정의 시세계를 논함에 있어 초기부터 후기까지를 아우르는 연구가 미미한 이유는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기와 중기 이후의 시세계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리된 논의들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근에는 초기부터 후기까지 신석정의 시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본고에서는 신석정의 초기 시세계를 대상으로, 초기 시세계가 왜 ‘자연 친화적’이며 ‘목가적’이라고 평가되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진행되어 왔으며, 이미 초기 시세계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대부분의 논의들이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들이었다. 신석정 시인을 ‘자연시인’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시세계를 조명하는 방식이었다. 본고에서는 신석정의 초기 시에 주로 나타나는 어휘를 중심으로 그 어휘들이 형성하는 의미망을 분석함으로써 신석정의 초기 시세계를 조명해 볼 것이다.

『촛불』과 『슬픈 목가』 두 권의 시집을 읽다 보면 눈에 띄게 자주 사용되는 어휘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산’과 ‘새’이다. 박태건은 신석정의 시에서 ‘산’은 지조를, 꽃과 ‘소년’은 청춘을, 그리고 ‘새’는 시인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⁸⁾ 이러한 분석은 이미 이전의 논고들에서부터 이어져 온 대체적인 분석 결과이다. 본고에서는 핵심 시어인 ‘새’와 ‘산’이 형성하고 있는 의미공간을 파악함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신석정의 초기 시세계를 구축해 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 신석정의 시세계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보면 주요 시어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적지 않으며, 그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어들 또한 ‘밤’, ‘촛불’, ‘먼 나라’, ‘어머니’, ‘대나무’, ‘입’, ‘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중 신석정 시의 핵심 시어로 볼 수 있는 ‘새’와 ‘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신석정 시의 ‘산’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인 논의로 김은영⁹⁾의 논의가 있는데, 이 역시 시작품에서 묘사되는 ‘산’의 속성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를 시대적 상황 변화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고 있어 기존의 신석정에 대한 논의들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시인의 시 경향을 최대한 멀리하고 시 속에 나타난 핵심 시어가 형성하고 있는 의미망을 살펴봄으로써 신석정 초기 시세계를 심도 있게 조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새’와 ‘산’이 형성하고 있는 의미망을 분석하는 틀로는 인지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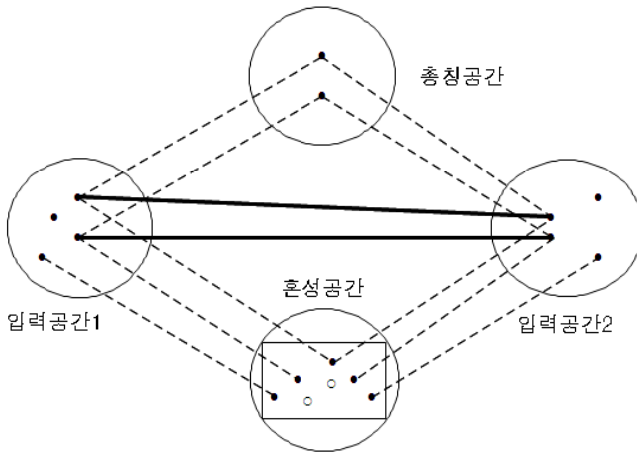
미학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8) 박태건, 『신석정 문학의 탈식민성 연구』 원광대 박사논문, 2008, 4~5면.

9) 김은영, 『신석정 시에 나타난 산의 이미지 변모 연구』, 『한중인문과학연구』, 2000. 12.

을 사용할 것이다. 인지시학은 그 스펙트럼이 매우 폭넓다. 본고는 그 중에서도 ‘혼성’ 연구에 집중할 것이다. 인지시학에서 ‘혼성’이란 개념적 혼성을 말한다. 인지시학의 혼성에서는 네 개의 정신 공간을 상정한다. 근원영역과 목표 영역, 그리고 혼성공간과 총칭공간이다.

인지시학의 혼성을 설명할 때 흔히 예로 드는 것이 도축업자로 비유되는 외과의사이다. 이때 도축업자는 근원영역이 되고, 외과의사는 목표영역이 된다. 외과의사를 이해하기 위해 도축업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것을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혼성공간이다. 네 번째 총칭공간은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에 의해 공유된 추상적인 인지 구조에 의해 규정된다.¹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개념적 혼성 기본 연결망 모형)¹¹⁾

도축업자로 이해되는 외과의사의 경우 도축업자와 외과의사가 각각 입력공간1(근원영역)과 입력공간2(목표영역)가 된다. 독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 Peter Crisp, Conceptual metaphor and its expressions, in Joanna Gavins and Gerard Steen (eds) *Cognitive Poetics in Practice*, London: Routledge, 2003, pp.109~110.

11) 질 포코니에·마크 터너 지음/김동환·최영호 옮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호, 2009, 78면.

도착업자에 대한 배경지식을 상기한다. 그와 동시에 외과의사에 대한 배경지식을 상기한다. 한 독자가 각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들은 서로를 간섭하게 되는데, 인지시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한다. 이 투사가 일어나는 공간이 총칭공간이다. 투사의 결과 재형성된 배경지식들이 혼성공간을 형성하며, 그 중 공통되는 특성들은 실선으로 표시된다. 종종 혼성공간은 자체적인 발현 구조를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인지시학의 개념적 혼성에 대해 종종 ‘유추’가 작동하는 원리와 같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그러나 유추에서는 근원영역의 요소 중에 독자들이 쉽게 추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목표영역으로 이동하는 데 반해 혼성에서는 목표영역과 근원영역 사이에 사상이 일어나 그 중 적절한 내용들이 혼성공간으로 이동한다. 포코니에와 터너는 개념적 혼성은 추리에 대한 단순한 조작이나 투사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새로운 통합적 행동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¹²⁾

이러한 인지시학적 연구 방법은 시를 읽을 때 독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단계별 사고 과정을 통해 시 해석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 방법론과 구별되는 의의가 있다.

2. ‘새’의 존재론적 은유와 이상세계로의 지향성

신석정의 시작품 전체에서 ‘새’와 관련된 시어가 등장하는 시는 모두 124편이며, 등장 횟수는 229회이다. 이는 전체 작품수의 40%에 가까운 편수이다. 그 중 초기 두 권의 시집에 실린 69편의 시작품에서 ‘새’의 이미지가 발견되는 시는 30편으로 『촛불』에 23편이, 『슬픈 목가』에 7편이 실려 있다. 이 중 새의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사용된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은 산새의 한없이 깊은

그 꿈을 깨우면 어떻게 할까요?

- 「그 꿈을 깨우면 어떻게 할까요」 부분

12) 질 포코니에/마크 터너, 앞의 책, 65면.

숲에 조으는 산새의 그 꿈을 엿보려 갑니다

-「너는 비둘기를 부러워하드구나」 부분

포르르포르르 자꾸 사라지는 가락한 산새들은

파란 바다의 또렷한 섬들이 어둠에 꺼지면

머언 삼림의 소박한 궁전을 찾아가 그들의 화려한 푸른 꿈을 짜낸다 합니다

-「은행잎을 \longleftrightarrow 바라보는 마음」 \longleftrightarrow 부분

위의 시들에서 ‘작은 산새의 한없이 깊은/그 꿈’, ‘숲에 조으는 산새의 그 꿈을 엿보려 갑니다’, ‘그들의 화려한 푸른 꿈을 짜낸다 합니다’ 등에서 보이듯이 시적화자는 ‘새’를 꿈을 꾸는 존재로 상정하고 있다. ‘꿈’의 사전적 의미는 ‘잠자는 동안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이며,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다. 따라서 꿈을 꾸다는 것은 다분히 이성적인 활동이며, 이는 시적화자가 ‘새’를 인간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의인화에 대해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터너는 가장 명백한 존재론적 은유라고 이야기한다.¹³⁾ 존재론적 은유는 추상적인 사건, 활동, 감정, 생각을 구체적인 물체나 물질을 통해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방식이다.¹⁴⁾ 따라서 인간의 활동 및 감정 등을 다른 사물 또는 생명체에 빗대어 표현하는 의인화는 가장 명백한 존재론적 은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의 시들에서 의인화된 ‘새’는 곧 시적화자인 ‘나’를 대변한다. 이를 통해 형성되는 개념적 혼성은 다음과 같다.

<근원영역 : 새>	<충칭공간>	<목표영역>
한없이 작다 숲에서 조은다 포르르포르르 사라진다 가락하다 화려한 푸른 꿈을 꾸다	한없이 작다 숲에서 조은다 가락하다 화려한 푸른 꿈을 꾸다	나는 사람이다

13) G.레이코프/M.존슨, 노양진/나익주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2006, 72면.

14) 양병호, 『한국 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 태학사, 2005, 47면.

<혼성공간>

나는 한없이 작은 사람이다 → 나는 아이이다
나는 가혹한 존재이다 → 나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나는 숲에서 조은다 → 숲은 보금자리이다, 집이다, 어머니다, 보호하는 자이다
나는 화려한 꿈을 꾸다

입력공간1에는 ‘새’가 위치하며, 시에서 묘사되는 새의 속성은 위와 같다. 입력공간2에는 존재론적 은유에 의해 시적화자인 ‘나’가 위치한다. ‘나’의 속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입력공간 사이에 서로 공유되는 속성이 총칭공간으로 이동하며 이는 다시 각각의 입력공간으로 사상된다. 그렇게 해서 두 입력공간에서 나온 구조는 혼성공간이라는 새로운 정신공간으로 투사된다. 이때 입력공간의 모든 요소가 혼성공간으로 투사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새’가 가진 속성 중 ‘사라진다’와 같은 속성은 시적화자인 ‘나’를 이해하는 데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므로 혼성공간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즉 시적화자는 작고 가혹한 존재이다. 시적화자가 꿈꾸는 공간은 어머니 무릎의 속성을 가진 숲(삼림)과 같은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다. 그 숲에서 화자는 화려하고 푸르며 한없이 깊은 꿈을 꾸고 싶지만, 한편으론 바람이 그 꿈을 깨울까 염려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혼성공간 이외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혼성공간은 자체적인 발현 구조를 지니기도 한다. 따라서 시를 읽을 때 화살표 오른쪽과 같은 혼성공간이 추가로 형성될 수 있다. 확장된 혼성공간의 형성에 의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 무릎은 숲이다 또는 숲은 어머니 무릎이다, 나는 작고 가혹한 존재이다, 나는 화려하고 푸르며 한없이 깊은 꿈을 꾸다. 새는 날개가 있어 자유롭게 날 수 있다. 가고 싶은 곳으로 언제든 갈 수 있다, ‘나’는 현재 부자유스러운 상황에 매여 있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 시적화자가 바라는 공간은 ‘숲’이다, ‘숲’은 어머니 같은 존재이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곳이다, ‘숲’은 이상세계이다, 시적화자는 이상세계로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다, …….

이러한 시적화자의 바람은 직유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다음 시들을 살펴보자.

산새 새끼 포르르포르르 멀리 날아가듯

-「날개가 돋쳤다면」 부분

산새처럼 저 푸른 하늘을 날고 싶지 않소?

-「오후의 명상」 부분

내 마음 산새인 양 포근포근한 보금자리를 찾는다

-「은행나무 선 정원도」 부분

나는 갑자기 산새처럼 가뜩하여지고

나는 갑자기 산새처럼 날아보고 싶었다

-「등고」 부분

백로처럼 날아볼 수도 없구나

-「산협 인상」 부분

위의 시들에서 시적화자가 희망하는 ‘새’는 찬란한 별빛을 찾아 ‘멀리 날아가’는 존재,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가뜩하’게 나는 존재, ‘포근포근한 보금자리를 찾는’ 존재이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나’는 ‘백로처럼 날아볼 수도 없구나’에서처럼 자유롭게 못한 외로운 존재이다. 멀리 자유롭게 날아가고픈 욕망, 안락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갖고자 하는 시적화자의 욕망을 ‘새’를 통해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석정의 시에서 ‘새’는 자유롭게 언제든 ‘숲’으로 날아갈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되며, 시적화자는 그러한 새가 되고 싶어 하지만, 신석정의 시를 감상적 낭만주의나 퇴폐적 상징주의로 볼 수는 없다.

많은 논의들에서 신석정의 초기 시세계에서 묘사되는 산은 현실과 분리된 공간, 현실의 암담함을 잊기 위한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던 것이 중기를 거쳐 후기로 오면서 ‘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고 논하고 있다.¹⁵⁾ 그러나 초기 시세계에서의 ‘산’ 역시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현실 속의 집과 같은 공간, 어머니 품 같은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신석정의 시에서 ‘새’는 환상 속에 존재하는 공간으로서의 ‘산’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으로부터의 도피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새’의 생활공간은 여전히 마을이며, 이곳이다. ‘산’은 ‘새’의 보금자리이며 ‘침대’일 뿐, 생활터전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논의들에서 신석정의 초기 시세계에 대해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는 당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인의 노력이었다고 평가하는 이유이다.

신석정의 시에서 ‘산’은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으로서의 어머니의 품으로 해석된다. 다음에서는 신석정의 초기시를 중심으로 ‘산’이 어떠한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산’의 존재론적 은유와 근원으로의 회귀성

신석정의 시세계를 논함에 있어 ‘산’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의 모든 시에서 ‘산’을 이야기하고 있거나 형상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석정의 초기 시세계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산’은 태고의 공간, 어머니 같은 넓고 포근한 보금자리, 모든 것을 품는 공간이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무서운 심판자가 되기도 하는 존재이다.

초기 시세계에 해당하는 두 권의 시집에서 ‘산’과 관련된 시어가 등장하는 횟수는 모두 『촛불』에 61회, 『슬픈 목가』에 65회, 모두 126회¹⁶⁾로 ‘산’ 또는 ‘숲’, 혹은 ‘삼림/산맥’ 등이 등장하는 주요 시작품은 다음과 같다.

안개 끼어 자욱한 강 건너 숲에서는
스며드는 달빛에 빈 보금자리가

15) 김은영, 『신석정 자연시 연구』, 아주대 박사논문, 2003, 95~97면 참조.

16) 김은영의 논문에서는 ‘산’이라는 낱말이 『촛불』에서 32회, 『슬픈 목가』에서 37회 등장한다고 하였으나 필자는 ‘숲’ 혹은 ‘삼림/산맥’ 등도 ‘산’ 관련 시어로 보아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숲’, ‘삼림/산맥’ 등의 시어들이 사용되는 양상 또한 ‘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늦게 오는 산새를 기다릴까요?

-「그 꿈을 깨우면 어떻게 할까요」 부분

산새의 노래 길은 숲엔 밤알이 쌓인 잎새들을 조심히 밟고

목은 산장 붉은 감이 조용히 석양하늘을 바라볼 때

까마귀 맑은 소리 산을 넘어 들려옴데다

-「가을이 지금은 먼 길을 떠나려 하나니」 부분

태양은 지금 아주 먼 어느 숲속을 건너서

-「홀륭한 새벽이여 오늘은 그 푸른 하늘을 찾으려 갑시다」 부분

저 깊은 삼림들은 작은 산새들로 하여금

황혼을 전별하기 위하여 거룩한 음악회를 열었다 합니다

<중략>

지금 삼림은 그 가룩한 산새들의 보드라운 숨결을 지키겠습니다

-「밤을 맞이하는 노래」 부분

흰 구름 이는 머리는 항상 하늘을 향하고 사는 산

언제나 숭고할 수 있는 푸른 산이

<중략>

고산식물들을 품에 안고 길러낸다는 너그러운 산

-「청산백운도」 부분

크나큰 산림처럼 깊고 조용하여

-「월견초 필 무렵」 부분

시방 우리 목장과 산과 하늘은

태고보다 곱고 조용하고나

-「소년을 위한 목가」 부분

위의 시들에서 ‘산’은 ‘안개 끼어 자욱한 강 건너’에 있으며, ‘아주 먼’ 곳에 존재한다. 이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산’은 현실과 분리되어 있는 이상향의

세계라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산’은 현실과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적화자를 대변하기도 하는 ‘새’가 언제든지 오갈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산’은 ‘달빛’이 스며들고, ‘늦게 오는 산새를 기다리며’, ‘산새의 노래 질’고, ‘까마귀 맑은 소리’가 들린다. 또한 ‘깊’고 ‘승고’하며, ‘머리는 항상 하늘을 향하고’ 산다. 그리고 ‘그 고요한 품안에 고산식물들을 안고 길러내’는 ‘너그러운’ 존재이다. 이러한 속성을 볼 때 ‘산’은 어머니의 속성을 지닌다. 따뜻하고 인락하며, 때로는 승고하고, 너그러운 존재이다. 늦게 오는 이를 기다려 주며, 품안에 안고 길러내는 존재, 즉 ‘산’은 어머니이다.

또한 여러 시작품에서 ‘산’은 ‘늪은 산, 명상하는 산’으로 묘사되어 있다. 다음의 작품들을 살펴보자.

늪은 산의 고요히 명상하는 얼굴이 멀어가지 않고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부분

주름살 많은 늪은 산의 명상하는 얼굴을 사랑하노니

—「산으로 가는 마음」 부분

늪은 산은 오랜 명상 끝에 찾아오는 잠으로 하여금

한 손으로 턱을 고인 채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밤을 맞이하는 노래」 부분

청수히 늪은 산이 팔짱을 끼고 서서 오늘도 하늘에 기대어 명상을 하리로다

—「속 병상음」 부분

때로는 늪은 산 수려한 이마를 쓰다듬거니

—「청산백운도」 부분

이러한 산에 대한 의인화에서 우리는 ‘산은 사람이다’ 혹은 ‘산은 어머니이다’라는 개념 은유를 도출해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형성되는 ‘산’의 혼성공간은 다음과 같다.

<p><근원영역 : 산></p> <p>강 건너에 있다 달빛이 스며든다 보금자리이다 산새를 기다린다 산새의 노래가 질다 아주 멀고 깊다 음악회를 연다 산새의 숨결을 지킨다 하늘을 향하고 산다 송고하며 푸르다 품에 안고 길러낸다 너그럽고 크나크다 조용하고 곱다 늙고 주름살이 많다 고요히 명상한다 팔짱을 끼고 선다 하늘에 기댄다</p>	<p><충칭공간></p> <p>멀리 있다 따스하다 보금자리이다 산새를 기다린다 깊다 음악회를 연다 산새의 숨결을 지킨다 하늘을 향하고 산다 송고하다 품에 안고 길러낸다 너그럽고 크나크다 조용하고 곱다 늙고 주름살이 많다 고요히 명상한다 팔짱을 끼고 선다 하늘에 기댄다</p>	<p><목표영역></p> <p>산은 사람이다</p>
<p><혼성공간></p> <p>멀리 있다 → 쉽게 만날 수 없다 달빛이 스며든다 → 따스하다 보금자리이다 → 집이다, 어머니이다 산새를 기다린다 → 나를 기다린다, 어머니이다 산새의 노래가 질다, 음악회를 연다 → 안락하고 즐거운 공간이다 산새의 숨결을 지킨다, 품에 안고 길러낸다 → 지켜주는 존재, 어머니, 절대자이다 송고하며 푸르다 너그럽고 크다 조용하고 곱다 늙고 주름살이 많다 → 나이가 많다, 많은 것을 안다, 지혜롭다 고요히 명상한다, 팔짱을 끼고 선다 → 고요히 지켜보는 자이다</p>		

기본 혼성공간 이외에 확장된 혼성공간의 형성에 의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산'을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는 '산'을 그 존재론적 은유를 통해 절대자 혹은 어머니의 속성을 지닌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산은 밤이다, '나'는 밤이 되면 산을 찾아간다, 밤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며, 산은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이다, 산에는 따뜻한 달빛이

스며든다, 너그럽고 크나큰 존재이다. 산은 품에 안고 길러내며, 지켜준다. 산은 어머니이다. 산은 태고보다 곱고 조용하며 숭고하다, 산은 모든 것을 품으며 모든 것을 지키는 존재이다. 산은 늙었다. 산은 많은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이다, 산은 눈을 감고 명상을 한다, 산은 모든 것을 지켜보지만 침묵한다. 산은 절대자이다, …….

위와 같이 신석정 시에서 ‘산’은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진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현실 속의 집과 같은 공간, 어머니 품 같은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다. 신석정의 초기 시세계에 대한 여러 논저들에서 ‘산’은 현실과 분리된 공간, 현실의 압담함을 잊기 위한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압담함을 잊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산’은 현실의 피곤함을 풀어주는 공간,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놓힐 수 있는 안식처로서의 공간이다.

4. 결론

본고는 신석정의 초기 시세계를 대상으로, 초기 시세계가 왜 ‘자연 친화적’이며 ‘목가적’이라고 평가되는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초기 시세계에 해당하는 『춧불』과 『슬픈 목가』 두 권의 시집을 읽다 보면 눈에 띄게 자주 사용되는 어휘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산’과 ‘새’이다. 본고에서는 핵심 시어인 ‘새’와 ‘산’이 형성하고 있는 의미공간을 파악함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신석정의 초기 시세계를 구축해 내는지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핵심 시어들이 형성하고 있는 의미공간을 파악하는 도구로 인지시학의 개념적 혼성을 사용하였다. 신석정의 시에서 ‘새’와 ‘산’은 많은 작품들에서 의인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인화에 의해 성립되는 존재론적 은유 구조를 고찰하였다.

그 은유 구조에 의해 신석정의 초기시에서 ‘새’는 시적화자 혹은 시인의 객관적 상관물임을 알 수 있었다. 시적화자가 희망하는 ‘새’는 찬란한 별빛을 찾아 멀리까지 날아가는 존재,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가볍게 나는 존재, 포근한

보금자리를 찾는 존재이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볼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외로운 존재이다. 멀리 자유롭게 날아가고픈 욕망, 안락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갖고자 하는 시적화자의 욕망을 ‘새’를 통해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석정의 초기시에서 ‘산’은 아주 먼 곳에 있으며, 따스하게 달빛이 스며드는 보금자리이다. 또한 산은 산새로 대변되는 ‘나’를 기다리는 공간으로 집이며, 어머니 같은 존재이다. 그곳은 산새의 노래 질고, 까마귀 맑은 소리가 들리며 음악회가 열리는 안락하고 즐거운 공간이며, 한편으로는 깊고 숭고하며, 너그럽고 크나큰 존재이다. 또한 산은 늙은 얼굴로 고요히 명상하는 지혜로운 자이며,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절대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신석정의 시작품들에서의 ‘새’와 ‘산’의 형상화를 통해 우리는 신석정의 초기 시세계가 목가적이며 전원적임과 동시에 현실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상적인 세계로서의 자연을 노래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신석정, 『신석정 전집 I』, 국학자료원, 2009.
신석정, 『신석정 전집 II』, 국학자료원, 2009.

2. 단행본 및 논문

- 강희안, 「신석정 후기시의 시간 의식과 현실 인식」, 『비평문학』 제40집, 2011.
김기림, 「1933년의 시단의 회고와 전망」, 『조선일보』, 1933. 12. 10.
김은영, 「신석정 시에 나타난 산의 이미지 변모 연구」, 『한중인문과학연구』, 2000. 12.
김은영, 「신석정 자연시 연구」, 아주대 박사논문, 2003.
박태건, 「신석정 문학의 탈식민성 연구」, 원광대 박사논문, 2008.
서정주, 「신석정과 그의 시」, 『한국의 현대시』, 일지사, 1965.
송영호, 「신석정 시의 상징체계와 시정신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11.
신현미, 「신석정 시의 인지 의미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11.
양병호, 『한국 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 태학사, 2005.
허소라, 「신석정연구」, 『한국언어문학』 제14호, 1976, 227~249면.
G.레이코프/M.존슨, 노양진/나익주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2006.
피터 스톡웰, 이정화/서소아 옮김,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질 포코니에/마크 터너, 김동환/최영호 옮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호, 2009.
줄탄 커베체쉬, 임지룡/김동환 옮김, 『언어·마음·문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역락, 2010.
Peter Crisp, Conceptual metaphor and its expressions, in Joanna Gavins and Gerard Steen (eds) Cognitive Poetics in Practice, London: Routledge, 2003.
히라가 마사코, 김동환/최영호 옮김, 『은유와 도상성』,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국문 초록〉

『촛불』과 『슬픈 목가』 두 권의 시집을 읽다 보면 눈에 띄게 자주 사용되는 어휘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과 ‘새’가 핵심 시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은 이 두 대상을 모두 의인화하고 있는데, 의인화는 인지시학에서 가장 명백한 존재론적 은유로 해석된다. 본고에서는 ‘산’과 ‘새’가 형성하는 은유 구조와 그로 인해 형성되는 혼성공간을 고찰한다.

‘새’는 시에서의 은유 구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혼성공간을 형성하며 시인의 객관적 상관물로 자리매김한다. “숲은 어머니 무릎이다, 나는 작고 가냘픈 존재이다, 나는 화려하고 푸르며 한없이 깊은 꿈을 꾸다. 새는 자유롭게 날 수 있다. 가고 싶은 곳으로 언제든 갈 수 있다,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 시적화자가 바라는 공간은 숲이다, 숲은 어머니 같은 존재이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곳이다, 숲은 이상세계이다, 시적화자는 이상세계로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다, ……”

‘산’의 혼성공간은 다음과 같다. “나는 산을 찾아간다, 산에는 따뜻한 달빛이 스며든다, 산은 너그럽고 크나큰 존재이다. 산은 품에 안고 길러내며, 지켜준다. 산은 어머니이다. 산은 태고보다 곱고 조용하며 숭고하다, 산은 품으며 지키는 존재이다. 산은 늙었다. 산은 눈을 감고 명상을 한다, 산은 지켜본다. 산은 절대자이다, ……”

혼성공간은 자체적인 발현 구조를 가지므로 ‘새’와 ‘산’의 혼성공간은 두 입력공간에 대한 독자의 배경지식에 따라 더 확장될 수 있다.

주제어 : 신석정, 산, 새, 인지시학, 혼성공간, 존재론적 은유

【Abstracts】

A Study on Blending Space of 'Moutian' and 'Bird' in Shin Seok Jeong's the early part Poetry

Jeong, yumi

When we read the two poetical works 『Candlelight』 and 『Sad pastoral song』, we can find the vocabulary which are very frequently used, among them, 'mountain' and 'bird' can be said to be the key poetic words. The poet personifies the two objects, personification is interpreted as the most clear ontological metaphor in the Cognitive Poetics. This manuscript contemplates metaphor structure which 'mountain' and 'bird' form and blending space which is formed by that.

'Bird' forms blending space by metaphor structure as follows, which is established as the poet's objective correlative. "Forest is mother's knee, I am small and commendable being, I am brilliant, green and dream an endlessly deep dream. Birds can fly freely. They can go to anywhere they want, I'm not free, I'm not satisfied with present situation, The space which poetic narrator wishes is the forest, Forest is like the mother, It can embrace everything, Forest is the ideal world, Poetic narrator wants to fly freely to the ideal world, ……."

Blending space of 'mountain' is as follows. "I go to search the mountain, Warm moonlight infiltrates into the mountain, Mountain is a generous and

great being. Mountain embraces, brings up, and protects. Mountain is the mother. Mountain is fine, calm and noble than the ancient times, Mountain is a being that embraces and protects. Mountain is old. Mountain meditates by closing its eyes, Mountain observes. Mountain is the absolute being, …….”

Blending space has self revelation structure, therefore, the mixed space of ‘bird’ and ‘mountain’ can be more extended along with readers’ background knowledge.

Key words : Shin Seok Jeong, Moutian, Bird, Cognitive Poetics, Blending Space, Ontological Metaphors

이 논문은 2014년 1월 12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1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2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